

일반논문

# 열흘간의 항쟁 체험과 시민의식의 변화\* -의미를 분석을 통한 5·18항쟁의 재구성-

김희송(전남대) · 최정기(전남대)

이 글은 5·18항쟁 시기 광주지역에 배포된 유인물의 의미를 분석을 통해 지배와 저항의 구성적 각축과정으로서 5·18항쟁의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5·18은 광주시민에게 상이한 시민의 역할을 요구했다. 항쟁 시기 저항 주체들이 발행한 유인물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민'은 저항하는 시민으로서 5·18항쟁을 상징하는 주의미를 역할을 수행했다.

5·18항쟁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시민 개념이 주의미들로 가능한 것은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이 지역적 공간으로서 광주시에 집중되었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항쟁 이전에 사용되었던 국민이나 민중의 개념은 5·18항쟁 기간에 도시의 구성원들이 겪었던 참상을 공유하기에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구성원을 포괄하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주의미들이 형성된 것이다.

한편 군부도 시민을 지속적으로 호명하고 있는데 군은 시민을 애국 시민과 불순분자로 구분하면서 선무공작을 통해 광주의 진실을 왜곡했다. 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항쟁 초기 광주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외친 투쟁 구호는 계엄철폐였다. 그럼에도 군부는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통해 항쟁의 발생 원인을 지역 정치인인 김대중의 구속과 연계지음으로서 5·18을 지역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5·18항쟁, 의미 분석, 주의미, 시민, 지배와 저항, 구성적 각축

\* 이 논문은 2014년 8월 29일 5·18기념재단 창립 20주년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1. 문제제기

시민 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 우리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숨겨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계엄군과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는 광주를 사수할 것입니다. 우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는 최후까지 싸울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계엄군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5월 27일 새벽 시민군의 마지막 가두 방송 내용).

시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광주시내의 폭도들은 소탕되었습니다. 시민의 관공서와 중요 시설은 군이 보호하고 있습니다. 잔당을 발견하면 즉시 인근 군경에게 신고하십시오. 시민 여러분의 협조로 군의 작전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시민 여러분은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외출을 삼가 하십시오.

잔당들에게 알린다. 많은 폭도들이 투항하여 생명을 보장받았다.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주저 말고 자수하라. 너희들의 체포는 시간문제다. 즉시 자수하라. 즉시 자수하여 살길을 찾아라(5월 27일 아침 계엄군의 소탕작전<sup>1)</sup> 종료 후 선무방송 내용).

1980년 5월 27일 광주시민들은 처음에는 시민군으로부터, 다음에는 계엄군으로부터 동시에 ‘시민 여러분’으로 호명되면서 5·18항쟁의 마지막 날을 맞이했다. 항쟁의 마지막 날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시민 여러분’의 기표는 동일했지만 그것이 창출하는 지시물은 전혀

---

\* 이 논문은 2014년 8월 29일 5·18기념재단 창립 20주년 국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1) 보안사령부의 5월 27일 상황일지는 “충정작전”으로 명명한 <광주 작전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5.27. 03:30 소탕 작전 개시

04:05 3공수 도청 도착 교전중 04:55 교전 완료

04:23 7공수 공원 도착 교전중 05:06 공원 점령 완료

04:30 11공수 전일빌딩 관광호텔 점령

전과 사항: 폭도 사살 13, 폭도 생포 295

다른 실체와 연결된다. 한편에서는 항쟁에 동참하는 시민으로 다른 한편에서는 진압에 협조하는 시민으로 함께할 것을 동시에 요구받은 27일은 지배와 저항의 구성적 각축 과정으로서 5·18항쟁의 10일을 상징한다. 이 연구는 항쟁 기간 동안 전혀 다른 의미로 호명되었던 시민에 대한 궁금증으로부터 출발했다. 선량한 시민으로 진압에 협조하는 애국 시민이 될 것을 요구하는 계엄군과 투쟁하는 시민으로 계엄군에 맞서 함께 싸우자고 호소하는 시민군의 호소가 교차했던 항쟁의 10일은 광주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 라는 질문이 그것이다.

이 글은 희생의 신화로서 ‘민주화의 성지’로 호명되고 숭배되는 광주가 아닌 역사적 사건으로서 5·18은 광주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 의미화 과정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광주의 유산으로 5·18정신의 급진적 혁명적 계승을 통해 80년대 사회운동의 급진화와 혁명화의 변화가 수반되었으며, 광주가 상대적으로 비타협적인 개혁자유주의 정당을 굳건하고 지속적으로 지지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병목지점을 통과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존재한다(조희연, 2009). 그런데 5·18항쟁 직후 실시된 1981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80년 광주학살의 가해자들이 주축이 된 민주정의당은 광주지역에서 24%의 지지를 확보하며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했다.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주정의당은 광주지역에서 27.6%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당선자를 배출했다. 1985년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민주정의당의 전국적 지지율은 35.25%로서, 지역별 지지율의 경우 서울지역 27.4%, 부산지역 27.9%와 비교할 때 광주지역의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별히 낮다고 할 수는 없다. 광주학살의 가해자들이 주축이 된 정당의 후보를 희생의 당사자였던 광주시민들이 선택했다는 역설적인 선거 결과는 중대선거구제가 갖는 선거제도의 특성으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민주정의당에 대한 지지율 추세는 87년 6

월 항쟁 이후 실시된 1988년 선거에서 전국적 지지율은 33.96%로 큰 차이가 없는데 비해 광주지역의 지지율은 9.7%로 급락하면서 88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를 배출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87년 6월 항쟁 이후 실시된 선거에서 광주지역의 선택이 민주화 과정에 역사적 계기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5·18항쟁 직후 실시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18 가해자들이 주축이 된 정당에 일정한 지지를 보내면서 당선자를 배출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처럼 5·18항쟁 이후 광주지역의 선거 결과에서 드러난 두 가지의 역사적 사실은 신화로서의 광주만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역사적 실재로 광주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계엄군에 맞서 싸우자는 5월 27일 새벽의 애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행동으로 나서지 못했지만 5월 18일 계엄군의 폭압에 맞선 시민들의 용기가 있었기에 5·18항쟁의 역사적 출발이 가능했다. 1980년 5월 광주를 구성했던 것은 선량하거나 혹은 투쟁하는 균질한 시민이 아니라 특정 시기에는 묵종했지만 다른 시기에는 적극 저항했던 다양하고 다원적인 시민들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혁명광주로 호명되는 균질한 5·18이 아니라 이른바 선량한 시민과 투쟁하는 시민이 교차했던 지배와 저항의 구성적 각축 과정으로 항쟁의 10일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항쟁 기간 동안 ‘시민들에게 국가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국가와의 관계에서 시민들은 자신을 어떻게 규정했는지?’를 질문할 것이다. 항쟁의 체험과 시민의식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5·18항쟁 기간 광주지역에 배포된 유인물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면서 의미들의 형성과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의미들의 내용은 사회운동이나 정치적 기회 구조의 변화에 조응한다는 점에서 항쟁 기간에 배포된

유인물의 의미들은 항쟁 기간의 흐름에 따른 시민의식의 변화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쟁 시기의 의미들 분석을 통해 지배와 저항의 구성적 각축과정으로서 5·18항쟁의 의미를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5·18항쟁 10일 동안의 항쟁 체험과 시민의식의 변화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의미들 분석의 대상을 5·18항쟁 10일 동안은 물론 항쟁 이전인 1980년 1월부터 항쟁 기간까지 광주지역에서 발간된 유인물 전체로 분석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 항쟁 기간만이 아니라 항쟁 이전에 배포된 유인물과의 비교 분석은 항쟁 체험에 따른 의미들의 변화를 세밀하게 관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 연구방법론

이 연구는 5·18항쟁 10일 동안에 광주지역에서 표출된 담론들의 의미들(frame) 분석을 통해 시민들의 항쟁 체험과 시민의식의 변화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의미들은 지배적 해석에 대항하여 기존의 사회체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안적 해석 체계를 의미한다(정철희, 2003:73). 대안적 해석 체계로서 의미들은 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은 물론 직접행동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Snow and Benford, 1992). 진단적 의미들은 사회문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에 대한 논리를 구성한다면, 처방적 의미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한다.

특히 의미들의 형성과 변화 과정은 지배세력에 맞선 저항세력의 담론 투쟁의 성격을 담지하면서 사회운동의 동원을 둘러싼 지배와 저항의 구성적 각축 과정을 반영한다. 따라서 5·18항쟁 시기의 의미들 분석은 광주시민들이 5·18항쟁을 겪으면서 형성된 5·18에 대한 인식과 의미들을 둘러싼 쟁투의 과정을 밝혀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5·18항쟁 시기에 배포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시위대의 투쟁 구호와 군의 선무활동 자료를 함께 분석하고자 한다.

항쟁 당시 배포된 유인물의 대부분은 사회운동단체나 운동가들이 자신들의 주장이나 항쟁소식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했기 때문에 유인물에 담긴 의미틀이 시민들의 보편적인 사회인식을 반영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18 당시 광주 시민들은 광주의 진실을 보도하지 않은 언론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던<sup>2)</sup> 반면에 유인물에 대해서는 폭넓은 지지를 보내면서 투쟁의 격문 기능뿐만 아니라 언론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간주했다는 점에서 유인물에는 당시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파악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유인물의 의미틀에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이 반영되었다고 전제하되 분석의 엄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쟁 당시 작성된 시민들의 개인 일기를 비교 분석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일반적 인식을 담고 있는 개인 일기와 유인물의 비교 분석을 통해 항쟁 시기 배포된 유인물이 시민들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했는지 파악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로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sup>3)</sup>된 80년 당시 시민들의 일기를 활용했다.

열흘간의 항쟁 체험과 시민의식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유인물을 통한 의미틀 분석과 함께 시민들이 항쟁 기간에 중심적

2) 광주의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는 5월 20일 광주MBC 건물 방화와 5월 21일 광주KBS 건물 방화로 표출되었다.

3) 유네스코는 2011년 5월 25일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최종 발표했다.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은 5·18항쟁 당시 공공기관, 개인 및 단체들이 생산한 문서와 항쟁 이후 5월 운동 및 역사 바로 세우기 과정에 생산된 문서, 사진, 영상 등의 자료로 국가폭력에 맞선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담고 있다. 등재된 기록물은 총9개 주제 기록 문서철 4271권 85만 8900여 페이지의 문서자료와 필름 자료 2017컷이다.

으로 사용된 투쟁 구호도 살펴볼 계획이다. 투쟁 구호는 투쟁에 참여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이해와 요구를 축약적으로 담아낸 조직화된 말이다. 투쟁 현장에서의 투쟁 구호는 자신의 요구를 주장한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투쟁 현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참여와 지지를 호소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담론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타자에게 관철하기 위한 헤게모니 쟁투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투쟁을 조직하는 투쟁 구호는 그 자체로 담론의 성격을 가지면서 동시에 담론 투쟁의 중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투쟁 구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누가, 어느 시기에, 어떤 이슈를 통해 투쟁을 조직화하려 했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투쟁 구호가 외쳐졌던 시기의 상황과 투쟁 주체들의 인식도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투쟁 구호가 갖는 담론의 성격에 주목하면서 항쟁 시기별 투쟁 구호의 내용을 군 기록을 포함한 항쟁 당시의 자료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기존의 5·18 연구에서 시위대의 투쟁 구호에 대한 접근은 항쟁의 성격과 주체를 규정짓는 과정에서 다루지거나(김성국, 1998: 124)<sup>4)</sup> 항쟁의 발발 원인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언급되고 있다(노영기, 2014: 257)<sup>5)</sup>. 그런데 투쟁 구호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항쟁 시기별 투쟁 구호와 그것의 발화 시기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5·18항쟁에 대한 연구에서 투쟁 구호를 분석의 대상으로 한 사례도 드물지만 그나마 진행된 연구에서 투쟁 구호의 내용과 발화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것은 분석 자료로서 투쟁 구호가 갖는 특수

4) 김성국은 “그 당시 나온 여러 가지 유인물이나 증인들의 기록을 종합해 볼 때 구호로는 ‘민주화’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를 이어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가 대중을 이루는 것 이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5) 노영기는 5·18항쟁의 도화선이 된 5월 18일 오전 10시 50분경의 시위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600~800여 명 정도의 학생들이 플랜카드를 앞세우고 ‘계엄령 해제’와 ‘김대중 석방’을 외치며 시위했다”

한 조건에 기인한다. 다른 5·18항쟁의 자료와 달리 투쟁 구호의 경우는 항쟁 주체의 시각에서 당시의 상황을 기록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일부 남아있는 자료도 항쟁 이후 채록된 구술 자료에 근거했다. 특히 5·18항쟁에 대한 구술 채록이 1987년 6월 항쟁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구술된 내용이 항쟁 당시의 기억에 기반한 것인지 아니면 항쟁 이후의 상황이 중첩되면서 변형된 기억인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투쟁 구호의 내용과 발화 시기를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과정에 발굴된 5·18 관련 군 자료가 확인되면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발굴된 자료는 1980년 5·18항쟁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자료의 생산 기관도 계엄사령부, 2군사령부, 전투교육사령부, 전남도경, 광주지검, 보안사령부, 31사단, 505보안부대, 전남도청 등으로 다양한 기관의 자료를 망라하고 있다. 새롭게 발굴된 군 자료를 살펴보면 5·18 당시의 시위 상황을 상황일지와 첩보 보고로 기록하면서 시위대가 외친 투쟁 구호를 함께 정리한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시위 상황을 시위 장소와 시간, 시위 군중의 규모와 이동 경로 등을 중심으로 실시간으로 기록하면서 투쟁 구호를 같이 수록했기 때문에 투쟁 구호의 내용과 발화 시기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투쟁 구호에 대한 분석에서는 계엄사령부의 계엄 상황일지, 전투교육사령부(전남북계엄분소)의 첩보 보고, 보안사의 충청작전 관련 서류철을 주로 활용했다.

한편 시민의식의 형성을 둘러싼 지배와 저항의 구성적 각축 과정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저항의 의미를 분석과 함께 신군부가 전개한 선무활동도 함께 분석할 계획이다. 군은 5·18항쟁 기간 동안 선무활동의 일환으로 광주지역에 총10종 233만장의 유인물을 21회에 걸쳐

살포했다. 군은 치안 회복에 협조를 요구하는 ‘계엄사령관 경고문’을 비롯해 광주시민의 자제를 촉구하는 ‘재경 호남동우회 호소문’ 등 다양한 종류의 유인물을 헬기를 이용해 살포했다. 또한 군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방송차량과 헬기를 이용한 선무방송을 매일 실시했는데 보안사가 1980년 작성한 ‘광주충정작전상보’에는 선무방송에 사용된 21쪽짜리 방송원고가 기록되어 있다.

5·18 당시 군이 선무방송에 사용했던 “소요 사태시 경고 방송 원고”에 따르면 군은 시위참가의 정도에 따라 시민에 대한 호명을 각각 달리하면서 설득과 경고 방송을 실시했다. 소요 사태시 경고 방송 원고는 5·18 당시 시민들의 시위에 대한 군의 인식과 대응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5·18 당시 군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선무활동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배와 저항의 구성적 각축과정으로서 5·18항쟁 10일을 다층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의미틀 분석을 통한 5·18항쟁 10일의 재구성

#### 1) 5월 18일~21일 : 저항의 의미틀

5·18항쟁 기간 광주지역에서 항쟁의 주체들이 발행한 유인물 가운데 현재 남아있는 유인물은 47종에 이른다. 항쟁 기간에 배포된 선언문, 성명서, 전단 등의 유인물은 1988년 발간된 ‘5·18광주민중항쟁 자료집’(이하, 자료집)과 1997년 발간된 ‘5·18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권’(이하, 자료총서 제2권)에 수록되어 있다. 그런데 자료집과 자료총서 제2권에 수록된 47종의 유인물보다 항쟁 기간에는 훨씬 더 많은 유인물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 내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령 투사회보의 경우 항쟁 기간 동안 1호부터 10호까지 연

속적으로 발행되었지만 3호, 4호, 8호는 자료집에 수록되지 못했다. 이들 자료는 항쟁 이후 진행된 유인물 수집 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아 항쟁 시기 발행된 유인물 목록에도 빠져있는 상황이다. 투사회보 2호가 5월 21일 발행되고 5호가 5월 23일 발행되었다는 점에서 3호와 4호는 5월 21일과 23일 사이에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그런데 합참 ‘상황보고철’의 1980년 5월 23일 ‘수시상황 접수’에는 투사회보 3호의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상황보고철은 5월 22일 상오 광주 시내 일원에 투사회보 3호 전단이 살포된 사실을 보고하면서 전단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sup>7)</sup>. 5·18항쟁을 기억하고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발견되지 않았던 유인물의 내용이 군 기록에 남아있는 것이다. 5월 19일 전남대 총학생회 명의로 발행된 “민족의 영혼은 통곡한다”는 유인물도 이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7) 5월 23일 수시상황 접수 내용)

폭도들은 5월 22일 상오 광주 시내 일원에 “투사회보 3호”라는 전단을 살포한 바 있음.

◎ 전단 내용

민주 승리의 날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1. KBS방송국을 접수하라.
2. 전 예비군과 경찰이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
3. 외곽도로 차단을 연결하라.
4. 남선연탄 공장 앞에 공수특전단원이 집결하고 있다.
5. 헬멧을 쓰고 한전 오토바이를 타고 도주한 놈은 특전원이다.
6. 공격 목적 외의 실탄 소비 말자.
7. 전 차량에 임무 분담을 표시하라.  
대형차 구급, 보급, 무기, 실탄.  
소형차 구급, 연락, 시위, 홍보.
8. 소형차에 스피커 설치하라.
9. 전 시민은 집에 조기를 부착하고 동별로 프랑카드를 준비하여 도청 앞에 집결하라.
10. 전 총기는 어른에게, 지휘자 명령 없이 발포금지
11. 전 시민은 투사자들에게 물자를 공급하라.
12. 21일 밤 15명 사망, 수십명 부상, 각 병원에서 치료 중.
13. 9시에 국무총리 내담 예정
14. 감언이설에 속지말자.
15. 전 세계의 마스크집이 광주에 집결하여 진상을 보도하고 있다. 투사들이여 힘을 내라!

-이상-

5·18항쟁의 발발 이후 광주시내에 투쟁을 촉구하는 유인물이 처음 배포된 것은 5월 19일로서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와 ‘광주시민투쟁위원회’ 명의의 유인물 3종이 현재 전해지고 있다. 광주시민투쟁위원회 명의의 ‘호소문’과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명의의 ‘민주시민들이여’와 ‘민주 시민아 일어서라’는 유인물이 각각 배포되었다. 그런데 5월 20일 보안사의 상황 보고와 계엄사령부의 계엄일지는 현재 자료집 목록에는 없는 전남대 총학생회 명의의 ‘민족의 영혼은 통곡한다’라는 유인물이 5월 19일 살포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군 기록에 따르면 ‘민족의 영혼은 통곡한다’는 유인물은 5·18 폭력 만행에 대한 실상을 보고하고 투쟁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5·18 폭력 만행에 대한 실상 보고는 같은 날 발행된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의 유인물의 내용과 유사하지만, 투쟁을 호소하는 결론 부분은 아래와 같이 다른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이러한 내용적 차이로 봤을 때 군 자료에 수록된 전남대 총학생회 명의의 5월 19일자 유인물은 군이 당시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명의의 유인물 내용을 잘못 보고한 것이 아니라 현재는 남아 있지 않지만 실제 전남대 총학생회가 발행한 유인물을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저 개같은 유신잔당 놈과 전○○놈<sup>8)</sup>은 또 다시 독재의 왕관을 차지하고자 혈안이 되어 이 무지막지한 만행을 자행하였으며 민족의 앞날이 막막하여 가슴이 터질듯 하구나. 민주 시민들이여 일어서라! 민주 시민들이여 일어서라! 피로서 울부짖노니 끝까지 투쟁하자. 5.18 시내 각처에서 대규모 시위 투쟁. 5.20 12:00 및 오후 3시에 도청, 시청 앞 집결. (민족의 영혼은 통곡한다, 1980년 5월 19일 전남대 총학생회).

<sup>8)</sup> 유인물과 시위대의 투쟁 구호에 거론된 인물을 보고할 때 군은 전두환의 경우만 “전○○”으로 기록하고 있다. 최규하 대통령의 경우도 실명 그대로 명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군 내부에서 전두환의 위상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글에서는 군 기록 그대로 인용했다.

아 이럴수 있는가? 저 개같은 최규하, 신현확, 유신잔당 놈들과 유신 독재자의 아들 전두환놈은 최후의 발악을 시작하였다. 아! 민주의 앞길에 떡구름이 가리는 구나! 民主市民들이여, 지금은 이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다. 당신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다! 일어서라! 일어서라! 끝까지 투쟁하자!!! 오늘부터 시내 각처에서 대규모 시위 전개. 매일 12시, 오후 3시에 도청·시청 앞 집결. (민주 시민아 일어서라, 1980년 5월 19일 조선대 민주투쟁위원회).

5월 19일 각각 배포된 학생회 명의의 유인물은 유인물의 형태와 내용이 유사한 것으로 봤을 때 동일한 주체들이 작성했거나 아니면 먼저 배포된 유인물을 참조해 재작성한 것으로 보인다<sup>9)</sup>. 유인물의 내용은 총칼로 학생, 시민들을 무차별 구타하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만행을 시민들에게 알리면서 저항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폭력 만행은 유신잔당과 전두환 일파의 권력 찬탈 음모에 있다고 원인을 진단하고 있다. 같은 날 배포된 광주시민투쟁위원회 명의의 ‘호소문’도 학생회 명의의 유인물과 유사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는데 폭력 만행을 자행한 공수부대를 공산당과 다를 바 없는 극악무도한 집단으로 지칭하고 있다.

계엄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는 대규모 차량 시위가 전개되는 등 상황이 더욱 격화되었던 5월 20일은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와 ‘선언문’ 등 2종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범시민민주투쟁위원회·학생혁명위원회 명의의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는 상황 보고를 통해 군의 발포 사실을 알리고 시민들의 구체적인 행동 강령으로 무기 제작을 주장하

<sup>9)</sup> 5월 19일 배포된 유인물의 경우 발행 주체로 명기된 전남대 총학생회나 조선대 민주회투쟁위원회가 실제 제작했는지의 유무는 현재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항쟁 당시 유인물의 발행 주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박찬승(2001)에 따르면 항쟁 초기 유인물을 제작한 제작팀은 5개 팀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각 팀들이 제작한 유인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는 못하고 추정만 하고 있다.

면서 “아! 형제여! 싸우다 죽자!”는 문구로 유인물을 마무리 하고 있다. ‘결전의 순간이 다가왔다’가 격화된 투쟁의 긴박함을 전하면서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면 같은 날 배포된 ‘선언문’은 시국 수습을 위한 항쟁 주체들의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진단적 의미들’에서 ‘치방적 의미들’로 변화되는 의미들의 변화를 함축한다.

이 나라의 장래와 더 이상의 희생을 막기 위해 우리는 결의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1. 껌테기 최규하 정부는 즉각 물러가라. 2. 살인마 전두환을 즉각 처단하라. 3. 구속중인 학생들과 모든 민주인사들을 즉시 석방하라. 5. 계엄령을 즉각 철폐하라. 6. 휴교령을 즉각 철폐하라. 7. 정부와 언론인은 전남인과 경상인의 지역감정의 왜곡보도를 허위조작하지 말라. 8. 천인공노할 발포 명령을 즉시 중단하라. 이 길만이 현 시국을 수습하는 유일한 길임을 역사 앞에 준엄히 선언한다. (선언문, 1980년 5월 20일 전남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전남민주청년합회·전남민주구국학생연맹).

항쟁의 사흘째로 접어든 5월 21일은 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와 이에 맞서 시민들이 본격적인 무장을 도모하면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전혀 다른 국면의 항쟁을 맞이하게 된다. 광주 시내 일원에는 ‘광주시민 총궐기문’, ‘민주수호 전남도민 총궐기문’, ‘전남민주회보’, ‘우리는 피의 투쟁을 계속한다!’ 등 4종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4종의 유인물 중 전남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회와 민주청년민주구국총학생연맹 공동 명의의 ‘광주시민 총궐기문’은 항쟁 기간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었던 시민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함께 저항 주체들의 군과 국가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인물이다. 항쟁 시기 발행된 유인물에서 ‘시민’은 주의미틀 역할을 수행하면서 저항의 중심 주체로 등장했지만 ‘애국 시민, 민주 시민, 광주 시민’ 등으로 다양하게 호명되면서

시민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그런데 ‘광주시민 총궐기문’은 시민의 개념을 파악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4백만 전남도민이여 총궐기하라! 전남 애국 청년들이여 총궐기하라!  
전남 애국 근로자들이여 총궐기하라! 전남 애국 농민들이여 총궐기하라!  
80만 민주 시민들이여 총궐기하라! … 공산당보다 더 흉악무도한 살인마  
전두환 사병 특전단은 우리의 젊은 학생들을 총칼로 찢러 배를 갈라 죽  
였으며… 하늘이여! 이 원통하고 피맺힌 민주 시민의 분노를 아는가? 삼  
천만 애국 동포여! 이 억울한 죽음의 소리가 들리는가? 민주 군대여! 말  
하라! 저 흡혈귀 살인마 전두환과 유신잔당 놈들을 죽일 것인가? 아니면  
민주를 외치는 순박한 애국 시민을 죽일 것인가를? … 애국 시민이여!  
손에는 돌, 몽둥이면 몽둥이를 들고 일어서라! … 승리의 그날까지 전 도  
민은 무기를 들고 매일 정오를 기하여 전남 도청 앞 광장, 광주공원, 금  
남로, 신역 등 광주로 광주로 모이자(광주시민 총궐기문, 1980년 5월 21  
일 전남민주민족통일을 위한 국민연합회·민주청년민주구국총학생연맹).

‘광주시민 총궐기문’은 80만 광주시의 구성원으로서 시민의 의미를 강조하면서도 민주를 외치는 시민으로서 국가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자율적 주체인 시민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무기를 들고 저항하는 시민이지만 스스로를 애국 시민으로 규정하면서 총을 든 시민이 국가에 맞선 존재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총을 든 이유가 국가를 부정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다. 억울한 죽음에 맞서 무기를 들었지만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맞선 군대는 국민의 민주 군대가 아닌 전두환의 사병으로 전락한 공수부대라고 규정하면서 자신들은 국가를 부정하지 않는 순박한 애국 시민임을 강조하고 있다.

5월 21일자 ‘광주시민 총궐기문’을 비롯해 항쟁 기간 발행된 유인물에서 자주 언급되는 ‘공산당’에 대한 언급은 5·18항쟁을 불순분자의 난동으로 호도하는 언론과 신군부의 주장에 대한 광주시민들의 반박

으로서 자신들이 비록 총을 들었지만 국가를 부정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이자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는 징표로 사용되었다. 항쟁 기간 동안 빈번하게 등장하는 태극기와 애국가도 비슷한 맥락으로서 대한민국의 체제 내에 자신들이 존재함을 드러내는 증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항쟁 기간 유인물에서 주의미틀의 역할을 수행한 ‘시민’이라는 용어가 항쟁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항쟁 체험에 따른 의미틀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살펴본 항쟁 이전의 유인물에서 시민은 단 한차례 등장한다. 1980년 1월부터 5월 17일까지 광주지역에서는 총 60종의 유인물이 발행되었는데 시민이라는 용어는 5월 16일 민주화 성회에서 낭송된 ‘민주의 나라<sup>10)</sup>’에서 “우리는 민주시민이다”라는 문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용되었다. 5·18항쟁 이전의 유인물에서 투쟁 주체와 관련된 용어는 ‘국민, 민족, 민중, 학생, 농민, 노동자, 민주인사, 지식인’ 등이 자주 사용되었으며 주로 ‘국민’이나 ‘민족’으로 호명되었다. 서울지역 대학총학생회가 5월 이전부터 사용한 ‘민중’이라는 용어조차도 광주지역의 경우 5월 8일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유인물에서 처음 등장한다.

그럼 5·18항쟁 이전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시민이라는 용어가 저항 기간을 관통하는 주의미틀로 등장하게 된 배경과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5·18항쟁 발발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던 계엄군의 잔혹한 폭력이 광주시를 중심으로 자행되면서 지역적 공간으로서 도시와 도시의 구성원인 주민으로서의 시민적 의미가 부각되었던 사실과 깊은 연관이 있다. 광주라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 속에 폭력에 노출된 도시의

---

10) ‘민주의 나라’는 자료총서 제1권에 수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폐퍼포그가 멈추고 / 최루탄이 사라지던 날 / 무진벌의 백성들이 모여 들었다 / 지식인이면 어쩌냐 / 노동자면 어쩌냐 / 농민이면 어쩌냐 / 우리는 민주시민이다.

구성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스스로를 ‘우리’로 규정하면서 우리를 규정하는 보편적 용어로 시민의 개념이 주로 사용된 것이다.

다음으로는 저항의 주체를 규정하는 용어의 범주 문제를 들 수 있다. 항쟁 이전 저항 주체를 상징하는 용어로 주로 사용되었던 민족이나 국민의 개념은 도시의 공간적 범위로서 광주에서 한 도시의 구성원들이 함께 겪었던 참상과 분노를 공감하고 아우르는 범주로는 너무 광범위했다. 또한 민중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의 개념은 민족이나 국민의 개념과는 반대로 그것의 범주가 너무나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구성원을 포괄하는 보편적 개념으로서 시민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의미틀이 구성된 것이다. 물론 항쟁의 성격에서는 국가로부터 자유를 추구했던 근대적 주체로서의 시민적 의미를 일부 함축하고 있었지만 항쟁 당시 발간된 유인물에서 규정되는 시민의 개념은 지역적 공간으로서 도시의 구성원인 시민을 호명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항쟁 기간을 거쳐 저항 주체들은 스스로를 시민으로 호명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호명에 광주시민들도 자연스럽게 호응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시민들이 먼저 스스로를 시민으로 규정하고 공수부대의 만행에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러한 부분을 저항 주체들이 유인물에 반영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항쟁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의 일기 내용은<sup>11)</sup> 유인물의 의미틀과 시

11) 5월 18일 日요일

當직사령을 하는 同安 새벽에 공수部隊 軍人 몇 사람이 우체국 사무실 구석과 운송차의 운전원석에서 헬멧과 총기만 풀러 놓은 채 잠을 청하거나 자는 것을 보았다. 場所가 마땅치 않아 걱정을 했더니 괜찮다는 대꾸가 아무렇게나 귀찮은 듯이 나온다. 젊은이들! 우리나라의 방패를 맡은 國軍이 아닌가! 아마 그들에게도 父母와 兄弟가 分明히 이 지역 아니면 어느 地域이던 있을 것 아닌가! 어찌자고 이들에게 分別없는 적대감을 誘發토록 市民이 흥분하는가! 아직 직접 그들의 지나친 계엄행위와 난폭함을 보지 못한 내게는 뭔가 아버지의 따뜻한 情을 禁할 수가 없다.

5월 19일 月요일

그 틈새 다른 방향에서도 약간의 무장 軍人은 東西南北으로 右往左往하면서 마치 쥐구멍에서 기어 나오는 쥐를 잡으려는 성난 고양이처럼 몽둥이를 쥐고 휘둘러대면

민들의 일반적 인식이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당시 우체국 공무원으로 광주항쟁의 주 무대가 되었던 금남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의 일기는 처음에는 공수부대의 불편한 여건을 부모의 심정으로 안타깝게 바라보던 시선에서 공수부대의 만행을 목격하면서 본인을 포함해 시민들이 공포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는 상황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 2) 5월 22일~27일 : 대동세상의 의미틀

시민들이 공포를 딛고 저항을 통해 맞이하게 된 5월 22일의 대동세상은 폭압의 당사자인 공수부대를 광주시민의 단결된 힘으로 몰아냈다는 것 이상의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다.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대동세상의 질서를 시민의 힘으로 구성해가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새로움의 시작이었다. 대동세상의 첫날인 5월 22일은 ‘투사회보 제 2호’, ‘선언문’, ‘전두환의 광주 살륙작전’, ‘우리겨레와 세계 자유민에게 보내는 목포시민의 결의문’ 등 4종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조선대학교 민주투쟁위원회 명의의 ‘전두환의 광주 살륙작전’<sup>12)</sup>은 5·17비상계엄 확대 이후 5월 21일까지 광주에서 발생한 사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면서 “이상의 믿어지지 않는 참상은 80만 광주 시민이

---

서 설치고 다닌다. 우체국 정문 네거리에는 가날과 보이는, 그러나 독기서린 짧은 육군중위가 버티고 서있지 않는가! 아마 어제는 이보다 훨씬 더했다. 직원들의 異口同聲이 터지는데 가위 市民의 흥분이 이제는 공포를 넘어서 어떤 對決의 장으로 치닫게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결재를 건우어 치우고 이제 錦南路쪽 길목을 쳐다봤더니 여기저기 도로마다 쭈뼛 쭈뼛 市民들이 창틈으로 또는 옥상에서 더러는 길모퉁이에서 몇 사람씩 짙지어 구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이들은 구경이 아니라 과잉방어를 증오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떤 증인으로서, 市民의 얼굴마다 야속한 표정, 착잡한 표정, 공포의 표정, 저주의 표정과 군데군데서 야유와 욕설이 날린다.

<sup>12)</sup> 5·18광주민중항쟁 자료집에는 5월 20일 발행된 것으로 분류되어 있으나 본문의 내용으로 봤을 때 5월 22일 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그 증인이다”고 기술하고 있다. ‘광주시민이 모두 증인이다’는 내용은 앞서 유인물의 의미들과 시민들의 일반적 인식 사이에 차이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검토했던 시민의 일기에서 “시민들이 시위를 바라보는 것은 구경이 아니라 증인이 되기 위한 목적”일 것이라는 언급과 비슷한 맥락이다. 시민의 일기와 유인물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시민이 증인’이라는 내용은 대동세상의 의미를 대표하는 문구가 되었다.

“80만 광주시민이 모두 증인이다”는 주장은 군의 외곽도로 차단과 언론 통제로 5·18항쟁이 광주만의 투쟁으로 제한되고 언론의 왜곡보도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광주시민들이 군의 만행에 맞서 투쟁했던 저항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광주시민들은 저항을 통해 공수부대를 몰아내고 시민들의 힘으로 새로운 대동세상을 만들었지만 그렇게 구성된 대동세상이 광주만의 대동세상에 그치고 저항의 진실이 은폐되는 것에 대해 대동세상의 첫날부터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광주가 고립되고 항쟁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에 대한 광주시민의 두려움은 80만 광주시민 모두를 증인으로 호명했던 것에서 점차 전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주의 진실을 전파하려는 노력으로 이어졌다. 대동세상의 둘째 날인 5월 23일에 발행된 유인물의 경우 ‘투사회보 5호, 6호’, ‘광주시민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시국 선언문’, ‘광주 애국 시민들에게’, ‘민주시민 여러분’ 등 6종으로 대부분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유인물이었다. 광주시민을 증인으로 호명하면서 저항의 진실을 시민들에게 재확인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5월 24일부터 배포된 유인물은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내용보다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화가 늘어났다.

〈표 1〉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화의 사례

발행 일자	제 목	발행 주체
5월 24일	대한민국 모든 지성인에게 고함	전남대학교 교수 일동
	전국 민주시민에게 드리는 글	80만 광주시민 일동
	국민에게 드리는 글	광주시민 일동
5월 25일	우리는 왜 충을 들 수밖에 없는가	시민군 일동
	전국 종교인들에게 보내는 글	광주시민 일동
	국민에게 드리는 글	광주시민 일동
	전국 민주학생에게 보내는 글	광주민주학생 일동
5월 26일	광주시민은 통곡하고 있다	광주시민 일동
	전국 언론인에게 보내는 글	광주시민 일동
	대한민국 국군에게 보내는 글	광주시민 일동
	대한민국 언론 지성인들에게 보내는 글	광주시민 일동

5월 24일부터 26일까지 총 30종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는데 그 가운데 11종의 유인물은 광주 시민이 아닌 국민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다. 항쟁 초기 광주 시민을 대상으로 한 호명에서 광주 시민이 발화자가 되어 국민들에게 5·18의 진실을 호소하는 유인물이 많아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광주가 고립된 상황에서 언론의 왜곡 보도로 광주의 진실이 왜곡되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5월 24일 ‘전국 민주 시민에게 드리는 글’에서 “신문·방송들은 군벌들이 시키는 대로 진실을 알리지 않고 거짓말만을 지껄여 대고 있습니다” 며 왜곡 보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5·18 항쟁의 진실이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것은 사실 보도를 외면한 언론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선무공작을 통해 언론 보도를 치밀하게 통제했던 신군부의 대응에 기인한 것이었다.

#### 4. 항쟁 시기 군의 선무공작과 담론 투쟁

##### 1) 항쟁의 원인을 둘러싼 담론 투쟁: 계엄군의 폭력인가? 김대중에 대한 지지인가?

5·18항쟁이 발발한 이후 군은 공수부대의 증파를 통한 무력진압의 시도와 함께 선무공작을 본격화했다. 육군참모총장은 5월 21일 광주 사태 수습을 위한 지시를 통해 6가지 사항을 하달한다(군사연구실, 1980). ‘전국 확산 방지, 선무활동으로 시민과 불순세력 분리, 지휘체계일원화로 군 사기 진작, 교도소 끝까지 방호, 광주 외곽도로망 차단, 시민자제촉구 선무활동’ 등 6가지 사항에 대한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는 이후 군 작전의 실질적 지침이 되었다. 특히 두번에 걸쳐 언급되는 선무활동에 대한 강조는 이후 군 작전이 광주에서 시민과 불순세력을 분리하는 차원만이 아니라 선무공작을 통해 전국적으로 광주를 고립시키고 군의 진압 명분을 세워가는 담론 투쟁의 성격으로 작전이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김희송, 2013). 군은 언론 통제를 통해 5·18에 대한 언론 보도만을 막은 것이 아니라 광주를 고립시킨 상태에서 광주에 대한 진실을 왜곡하는 선무공작을 전개함으로써 5·18항쟁을 군부의 의도에 따라 재구성하려 시도했다.

이러한 대표적인 사례는 5·18항쟁의 발발 원인에 대한 군부의 의도적인 왜곡을 들 수 있다. 5·18에 대한 군부의 인식은 보안사령부에서 작성한 ‘광주소요사태 분석<sup>13)</sup>’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신군부는

13) 5월 27일 작성된 ‘광주소요사태 분석’ 문건은 1.개요 2.소요사태의 단계별 구분 3.종합분석 4.소탕작전 성공에 따른 기대효과 5.교훈 6.결론 순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록으로 “투입병력현황, 광주중심 폭도출몰지역, 폭도들의 표면적 요구사항, 날조된 유언비어, 무기고 피탈기관, 선무활동실적, 피해현황, 전과, 소탕작전 개황, 주요사건 현황”을 기술하고 있다. 보안사의 광주소요사태 분석 문건은 항쟁 직후 작성된 군부의 종합보고서로서 5·18에 대한 군부의 초기 시각을 확인할 수 있다.

5월 18일과 19일의 시위가 단순 소요단계에서 폭동화 단계로 발전한 원인은 “김대중 구속에 따른 지역감정과 군의 초동진압의 미진으로 학생 소요와 시민 호응 유발”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항쟁의 시작이 김대중 구속에 따른 반발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신군부의 주장과는 달리 항쟁 초기인 5월 18일부터 21일 사이에 저항 주체들이 발행한 유인물에서 김대중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항쟁 초기에 발행된 유인물에서 김대중은 거론조차 되지 않으면서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의미를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 항쟁 기간 배포된 유인물에서 김대중이 처음으로 언급된 것은 5월 24일 발행된 ‘껌데기 정부와 계엄당국을 규탄한다’로서 “김대중씨를 비롯한 모든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석방하라”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다. 5월 24일 배포된 ‘전국 민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에서도 김대중이 언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김대중이 유인물에서 본격적으로 언급된 것은 항쟁 초기가 아닌 항쟁 중반부인 5월 24일부터라고 할 수 있다. 유인물의 의미틀에 따르면 김대중을 항쟁의 발발원인으로 거론하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항쟁의 직접적인 발발 원인으로 김대중과의 연관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 군의 주장처럼 시위 현장에서는 김대중관련 내용들이 언급되면서 항쟁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 것일까? 5·18항쟁 시기에 작성된 군의 기록에 따르면 항쟁 초기 시위현장의 투쟁 구호에 있어서도 유인물의 의미틀과 마찬가지로 김대중은 거론되지 않았다. 아래 <표 2>는 ‘계엄사령부 상황일지’와 ‘보안사령부 상황보고’에 기록된 시위대 동향보고에서 투쟁 구호와 전단내용을 따로 발췌한 내용이다.

〈표 2〉 군 자료에 기록된 시위대의 투쟁 구호 및 유인물 내용<sup>14)</sup>

날짜	시간과 내용
5.18	11:40 가톨릭 센터 앞에서 손에 돌을 들고 <b>전두환 물러가라, 계엄해제하라</b> 는 구호를 외치며 11:50 <b>비상계엄 해제하라</b> 프랑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학생을 기동경찰이 포위하여 최류탄 발사 12:30 학생회관 앞에서 재집결 불로동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b>계엄해제</b> 구호를 외치고 있음
5.19	11:15 정의가를 제창하며 농성중 12:20 <b>계엄해제</b> 등을 외치며 17:00 광주시내 일부 대학생 및 고교생들 간에 ‘경상도 계엄군이 전라도 사람죽인다, 학생들이 많이 다치고 일부는 죽었다’는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크게 유포되고 있다고 함
5.20	11:00 12시에 만남시다, 20시에 만남시다 등의 구호가 전파되고 있음, 유인물 살포 동정보고: 5.19 광주시내 가두 시위시 전남대 총학생회 명의의 “민족의 영혼은 통곡한다”제하의 유인물 살포 17:00 <b>애국가 및 계엄해제를 외치자</b> 계엄군이 격분 해산을 중용하였으나 불응 18:20 계엄군과 대치하면서 <b>계엄군은 물러가라, 군인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라, 계엄해제하라, 전○○, 신현확 물러가라</b>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중
5.21	11:10 커피센터 벽보판에는 때려잡자 전○○, 물러가라 최규하, 사라져라 신현확, 비상계엄 해제하라, 칼부림이 왜말이나, 너와 나는 형제라고 쓴 벽보가 붙어 있음 12:00 리어커에 시체 2구를 싣고 이동하면서 <b>전두환 물러가라, 계엄 해제하라, 연행 학생 석방하라</b> 고 외치고 있으며 12:30 구호내용: <b>김대중 석방하라, 전두환, 신현확 물러가라</b>
5.22	8:30 폭도들은 다음 내용의 선언문을 도청회의실에서 발표, 내용: <b>깡뚱이 최규하정부 물러가라, 살인마 전두환 물러가라</b> 12:00 강진 청년 및 고교생(농고)이 추력 2대에 분승 <b>계엄 철폐, 전○○물러가라</b> 등의 구호 외치며 13:45 도청앞 3만명 집결, 결의문 내용: <b>유신잔당 몰아내자, 현정부 물러나라, 꼭두각시 최○○는 물러가라, 전○○물러가라</b> 14:45 강진쪽으로 향발하였는바 동 버스에 <b>김대중 석방하라</b> 는 프랑카드를 게시하였음 15:00 5.22상오 광주시내 일원에 투사회보 3호 제목의 전단을 살포한 사실이 있음

14) 본문 내용 중 굵은 글씨는 필자가 강조한 부분으로 군 기록에서는 구분되어 있지 않다.

5.23	9:00 목포소요사태, 시국성토대회 종료, 구호내용: <b>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노동3권보장하라, 최규하 대통령 물러가라, 전○○물러가라</b> 21:30 목포시민햇빛솔씨위 구호내용: <b>계엄 해제하라, 김대중 석방하라, 전○○물러가라</b>
5.24	12:05 전남소요 동정, 목포역과장에서 가두 시위중 구호 <b>비상계엄해제, 김대중 석방, 전○○석방</b> 21:00 광주시내 데모 학생수습위원회 동향, 현재 동회는 프린트 유인물 ‘투사’ 7호를 발간
5.25	14:40 1,00여명의 고교생이 목포역 광장에 집결하여 성토 중에 있는 바 구호 내용: <b>목포시민은 자중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광주사태 보상하라, 김일성은 오판말라</b> 15:35 목포역 광장에 운집해 있던 학생들은 1,500명으로 증가하여 <b>김대중 석방하라, 전○○물러가라</b> 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목포역 광장을 출발 18:30 도청앞 광장에서 쾨기대회를 실시한 후 <b>계엄해제, 전○○물러가라</b>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5.26	11:45 목포역 광장 광주양민학살은 계획적인 만행이다. <b>전○○은 죽어라</b> 등의 구호를 외치며 15:00 <b>계엄해제, 김대중 석방, 전○○물러가라</b> 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2:30-14:50간 <b>시민의 피를 보상하라, 전○○ 물러가라</b> 등의 구호와 승리가를 제창하면서 시위 16:45 목포시내 고등학생 600명은 <b>비상계엄 해제, 전○○물러가라</b> 등의 프랑카드를 들고 목포역 광장을 출발, <b>광주사태 보상하라, 노동3권 보장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b>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13:30 도청에서 시민200여명은 계엄해제 내용의 머리띠를 두르고 <b>인간백정 계엄군은 약속을 불이행했다, 전○○은 물러가라, 고등학생은 남도회관 집합, 대학생은 YWCA집합</b> 등 선동 15:25 도청, 구역, 전남의대 병원 앞에 합동수습위원회명으로 시민에게 호소하는 벽보부착, <b>대학생은 YWCA회관으로 모여라, 광주시민은 몽치자, 최후의 한사람까지 싸우자, 전○○일당은 물러가라, 과도정부는 모든 책임을 져라, 죽은자들 앞에 부끄러움을 나타내지 말자</b>

군 자료를 정리한 <표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항쟁 초기의 시위 현장에서 김대중과 관련된 투쟁 구호는 언급되지 않았다. 군 기록에 따르면 5·18항쟁 기간 동안 시위현장에서 김대중과 관련된 투쟁 구호는 5월 21일 시위에서 처음 등장한다. 항쟁이 촉발된 5월 18일과 19일의 시위에서 시위대가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계엄해제’였으며, 김대중관련 구호는 등장하지 않았다.

군 기록에 나타난 것처럼 5월 18일부터 20일까지의 시위에서 김대중 관련 구호가 실제로 언급되지 않았던 것인지 아니면 군이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현 시점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추론은 가능하다. 군이 투쟁 구호를 비롯하여 김대중과 관련된 시위동향을 고의로 누락시킬 이유는 없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신군부는 5·18항쟁 관련자들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연계시켜 김대중을 주모자로 기소했기 때문에 김대중과 관련된 시위상황을 누락시킬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군 기록에서 김대중관련 투쟁 구호가 보고되지 않았다면 시위현장에서도 실제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했을 때 5·18항쟁 시기 시위현황을 정리한 군의 기록에 따르면 투쟁 구호에 있어서도 유인물의 의미들과 마찬가지로 김대중을 항쟁의 발발원인으로 규정짓기는 무리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김대중과의 연계를 지속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군의 주장은 일차적으로는 군의 폭력만행으로 촉발된 항쟁의 발발원인을 김대중과 연결시켜 지역감정의 문제로 호도함으로써 군부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효과와 함께 지속적인 거짓주장으로 거짓을 진실처럼 인식하게 하는 담론의 효과를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군부의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상당한 담론효과를 얻고 있는데 5·18항쟁에 대한 연구에서도 항쟁 초기에 시위대가 김대중 석방 구호를 외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군 기록에 따르면 김대중 석방에 대한 구호는 5월 21일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5·18항쟁의 발발 원인을 김대중과 연계시켰던 군부의 주장이 일정하게 담론효과를 가지면서 항쟁 초기부터 김대중 석방을 요구했을 것이라는 일반화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지역에서 김대중이 정치적 지도자로서 헤게모니적 지위를 갖게 된 것은 5·18항쟁 시기보다는 87년 대선 이후의 시기

라고 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대중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광주지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게 된 것도 1988년 제13대 총선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을 5·18항쟁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은 군부의 선무공작에 따른 담론효과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군부의 선무공작은 군 자료에 따르면 5월 21일부터 본격화되었다. ‘계엄사령부 상황일지’와 ‘전교사 정보처 일지’는 5월 21일 새벽 1시 선무활동을 목적으로 2군 정보 참모외 13명이 광주에 파견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군 기록에는 5월 21일 선무활동 부대가 파견되었다는 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이들 부대의 규모나 구체적 활동 내역은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5월 27일 광주 진압작전 성공 이후 보안사령부가 작성한 ‘광주소요사태 분석’ 자료에서 종합분석의 내용으로 “선무활동의 효과 다대”라는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활동을 전개했을 것으로 추측될 뿐이었다.

그런데 최근 발굴된 합참의 상황보고철에는 1980년 5월 25일 현재 ‘광주지역 선무공작 현황보고’ 라는 문건이 수록되어 있어 단편적이거나 선무공작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광주지역 선무공작 현황보고에 따르면 선무 공작실은 5월 21일 설치되었으며 편성인원은 대령 2명, 중령 4명 등 총30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5월 21일 전교사 정보처 일지에 선무활동을 위한 파견인원으로 대령 4명, 중령 5명, 소령 1명으로 보고되었다는 점에서 합참 상황보고에 드러나지 않는 선무공작 부대가 더 존재했던 것으로 추론된다<sup>15)</sup>.

선무 공작실은 ‘KBS 방송 중계 및 자체 프로 제작, 항공기 공중 방송 및 방송차 대치선 방송, 전단 살포’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고

15) 5·18 당시 군의 선무공작 부대의 활동과 활동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김희송(2013)참조.

하고 있지만 구체적 활동내역은 밝히지 않고 있다. 선무 공작실의 활동으로 보고한 전단 살포의 경우 군은 항쟁기간 동안 광주지역에 군의 입장을 담은 전단 233만장을 21회에 걸쳐 살포했는데, 이렇게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이 5월 21일 이후 살포되었다는 사실은 5월 21일 설치된 선무공작실의 활동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 연관성은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 2) 시민에 대한 군의 인식

군이 선무공작의 일환으로 진행한 항공기 공중방송 및 방송차 대치선 방송에서 활용한 특전사령부의 ‘소요 사태시 경고방송 원고’는 시위참가의 정도에 따라 시민을 다르게 호명하고 있어 5·18당시 군의 시민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선무방송을 위해 작성한 소요 사태시 경고방송 원고는 시위의 격화 정도에 따라 제1단계 설득 방송, 제2단계 경고 방송, 제3단계 선무 방송 순으로 작성되었다. 또한 각 단계별 방송은 시위의 양상과 시위에 참가한 구성원들에 따라 각 상황을 세분화하여 각각의 방송원고가 따로 작성되었다. 시위 단계별 선무방송 원고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군의 시위 단계별 선무방송 내용**

시위 단계	방송 주제	방송 내용 일부
제1단계 설득방송 (학생)	조국이 치해있는 현실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한 여러분의 애국심을 우리 군은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학생의 본분 주지	안보관이 확립된 여러분이라면 진정한 애국의 길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학생이라면 속히 학생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학생의 본분을 찾으십시오.

	애국충정의 일념 고취	조국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해야할 중차대한 사명 앞에 우리 군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호소합니다. 혼란과 방종으로 공산당에게 나라를 빼앗긴 월남과 크메룬의 전철을 밟지 말자
제2단계 경고방송 (학생)	집단 활동전 방송	학생여러분 질서를 지키는 것은 지성인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야기될 불행한 사태에 대해 재차 경고하며 다시 한번 해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깨스 살포 경고	경고한다. 현 시각까지 해산하지 않고 소요에 참가하는 인원에게 모든 사태의 책임을 묻겠다.
	깨스 살포전 시민에게 경고	애국 시민 여러분! 국가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출동한 군은 더 이상 불행한 사태를 막기위해 만부득이 강력한 가스를 살포하게 되었습니다.
	연도 군중에게	애국 시민 여러분! 안보관이 투철한 시민여러분께서는 오늘의 난국 타개를 위해 협력하여 주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데모대 주위의 군중에게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계엄군이다. 비상 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시민여러분!
	데모대에 합세한 군중에게	경고한다. 지금 여러분의 행동은 법과 질서를 파괴하고 있으며 안정을 바라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자진해산 하여 줄 것을 명령한다.
제3단계 선무방송 (학생, 시민)	작전 종료 직후(1)	학생 그리고 시민여러분! 우리 군은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만부득이고 그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작전 종료 직후(2)	친애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의 안보태세와 국민총회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기에 일부 무분별한 학생들의 경계망동한 행동으로 인하여 사회적 불안이 야기되었습니다.

군의 시민에 대한 인식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제2단계 경고방송의 경우 시위 양상에 따른 구분과 함께 시위에 참가한 시민의 범주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군은 시민의 범주를 시위에 참여한 수준에 따

라 ‘연도 군중’, ‘데모대 주위의 군중’, ‘데모대에 합세한 군중’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대상에게 상황에 따라 경고방송을 다르게 실시했다. 군의 경고방송 원고는 시민들에 대한 구분과 이에 따른 군의 인식과 대응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먼저 시위대의 좌우 양쪽에 있는 ‘연도 군중에게’는 애국 시민으로 호명했다. 연도군중에 대한 경고방송에서 군은 불행한 사태를 막기 위해 출동했으며 시민들이 난국타개를 위해 협력하여 줄 것을 믿고 있다며 그 어떠한 불순세력의 선동에도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군은 경고방송이지만 연도 군중을 애국 시민으로 호명하면서 정치적 수사일지라도 호의를 표명하고 있다.

다음으로 ‘데모대 주위의 군중에게’는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계엄군이라며 계엄군의 역할을 먼저 주지시킨다. 그리고 비상시국을 슬기롭게 극복하고자 노력하시는 시민 여러분으로 호명하면서 군은 절대 혼란을 조성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니 지금 즉시 이곳을 떠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데모대에 합세한 군중에게’는 바로 경고부터 실시하였다. 데모대에 합세한 군중은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는 남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북한 괴뢰를 도와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고하면서 6·25와 같은 민족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이성을 찾아 자진 해산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군의 경고방송은 애국 시민으로 호명된 연도의 군중에게는 불순분자의 선동에 현혹되지 말 것을 권유한 반면 데모대 주위의 군중에게는 자신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계엄군이라며 불순세력으로 오인 받지 않도록 현장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데모대에 합세한 군중에게는 군은 아무런 부연 설명 없이 먼저 경고부터 하면서 즉시 해산할 것을 명령한다. 군의 시각에서 데모대에 합세한 군중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계엄군이

설득하고 권유하는 대상이 아니라 경고하고 해산을 명령할 대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1980년 5월의 비극적 사건으로서 항쟁의 시발은 이러한 군의 시민에 대한 구분과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엄군의 시민에 대한 구분과는 달리 광주의 80만 시민은 연도의 군중이 아니라 스스로를 기꺼이 데모대에 합세한 군중으로 자신의 역할을 규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광주시민은 군의 선무방송과는 달리 계엄군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동한 군인이 아니라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전두환일파의 사병으로 공산당보다 못한 살인마 집단으로 간주했다. 군은 선무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안정되고 질서 있는 민주시민’으로 국가의 공공 안녕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협조를 거듭 촉구했지만 시민들은 공공의 안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은 군인들이라고 간주했다. 군의 선무방송과는 전혀 다른 시민들의 인식은 ‘민주시민회보 제9호’에 잘 드러나 있다.

5월 26일 배포된 민주시민회보 제9호는 모든 시민과 학생들은 끝까지 평화적이고 질서정연한 투쟁을 전개하려고 노력했지만 계엄당국은 ‘순수한 데모대열’에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해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시민의 이름으로 계엄당국을 규탄하고 있다. 군의 선무방송 원고에서 확인되듯이 군은 데모대에 합세한 군중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불순분자로 간주했던 반면 시민들은 데모대열에 합세한 군중들을 순수한 데모대열로 인식함으로써 군의 인식과 근원적인 불일치를 드러냈다. 이러한 근원적인 불일치가 결국은 역사적 사건으로서 5·18을 촉발시킨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 5. 맺음말

대동세상의 실질적인 마지막 날이 되었던 5월 26일 광주시내에는 13종류의 유인물이 배포되었다. 5월 26일은 항쟁 기간 가운데 가장 많은 유인물이 배포된 날로 기록되고 있다. 5월 24일부터 발행된 유인물들이 광주의 경계를 벗어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발화들이 많았다면 5월 26일은 다시 광주와 광주시민들로 재수렴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계엄군의 재진입을 속보로 전한 5월 26일의 ‘급보, 다같이 단결합시다’에서 알 수 있듯이 불안하게 유지되었던 광주만의 대동세상과 평화가 계엄군의 재진입으로 위태로운 상태에 처하면서 다시 광주시민들에게 투쟁을 호소하는 내용으로 변화된 것이다.

광주시민 일동의 ‘광주 민주시민 여러분께’는 이러한 변화를 상징하면서 대동세상의 불안했던 마지막을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다. 대동세상 기간에 발행된 광주시민 일동의 유인물의 경우 대부분 광주가 아닌 광주 외부를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광주민주시민 여러분께’는 광주시민 일동이 다시 광주시민들을 대상으로 발화를 시작하면서 대동세상과는 다른 시기가 도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광주 시민 여러분께. 이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고장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총궐기한 민주 시민여러분! 승리의 그 날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광주 시민 의거”는 전남북의 각 시군을 거쳐 부산 마산 서울 충주 등 전국 각지로 들불처럼 번지고 있으며 … 시민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80만 시민만 뽄뽄 뭉치면 분명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뗏뗏하게 “민주사회”를 안겨주도록 우리 모두 끝까지 투쟁합시다(광주 민주시민 여러분께, 1980년 5월 26일 광주시민 일동).

‘광주 민주시민 여러분께’는 열흘간의 항쟁 체험에 대한 평가는 물

론 항쟁 이후에 광주시민들이 바라는 미래상까지 합의하고 있다. 열흘간의 항쟁을 스스로 ‘광주 시민 의거’로 규정하면서 광주 시민은 나라의 민주주의와 이 고장의 자유와 정의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도시의 주인인 시민으로 자신의 도시를 지키기 위해 꺾기했으며, 자신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피해보상과 연행자 석방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 나라의 진정한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한다며 민주사회를 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과 주장은 저항 기간의 투쟁을 통해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쟁취한 이후 저항을 통해 쟁취한 자유의 공간에서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에 의한 모두의 통치인 대동세상을 구현한 항쟁의 체험들이 반영된 주장이다. 5월 18일부터 21일까지의 저항 기간이 국가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으로서 시민·정치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5월 22일부터 27일까지의 대동세상은 그 누구도 꿈꿔보지 못했던 적극적 자유로서 스스로의 통치를 구성하는 과정이었다. 항쟁이 격화되면서 시민이라는 용어의 사용빈도가 증가하고 시민의 개념 또한 점차 저항하는 시민의 개념으로 전화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항쟁의 다차원적 체험들이 대동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었던 26일의 유인물에서 민주사회와 민주정부 수립에 대한 희망으로 표출하면서 역사의 증인으로 투쟁하는 시민의 역할을 규정했다.

그러나 항쟁과 대동세상의 다층적 체험을 통해 광주시민들이 꿈꾸기 시작한 민주사회에 대한 희망을 구현하기에는 광주에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 짧았고 제한적이었다. 군의 외곽도로망 차단으로 광주가 철저히 고립되면서 모든 시민의 통치로서 대동세상은 광주만의 체험으로 제한되었으며 선무공작에 의해 항쟁의 진실이 불순분자의 난동으로 왜곡되고 있었다. 의미를 분석에서 확인되듯이 5·18항쟁은 군의 무자비한 진압에 맞서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호명하다가 점차 자율적

인 존재인 시민으로 스스로의 위치와 역할을 변화시켜가면서 모두의 통치를 구현하는 과정이었으나, 5·18항쟁이 미완의 항쟁으로 종결되면서 광주시민이 희망했던 민주사회와 시민의 역할은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새롭게 구성될 때까지 침잠의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2014년 10월 2일 접수, 10월 28일 심사완료, 11월 15일 게재확정)

참고문헌

- 광주광역시 5·18사료편찬위원회. 1997. 『5·18 광주민주화운동자료총서 제2권』.
- 김성국. 1998. 「국가에 대항하는 사회·5·18의 자유해방주의적 해석」. 『세계화 시대의 인권과 사회운동: 광주민주화운동의 재조명』. 한국사회학회 편. 서울: 나남출판.
- 김희승. 2013. “5·18항쟁시기 군부의 5·18담론”, 『민주주의와 인권』 제13권 3호: 5-36.
- 노영기. 2014. “충을 든 시민들, 시민군”, 『역사비평』 제107권: 253-279.
- 박찬승. 2001. 「선언문·성명서·소식지를 통해본 5·18」. 『5·18민중항쟁사』. 광주광역시5·18사료편찬위원회.
- 전남사회문제연구소. 1988. 『5·18광주민중항쟁 자료집』. 서울: 도서출판 광주.
- 정철희. 2003. 『한국 시민사회의 귀적-1970년대 이후 시민사회의 동학』. 서울: 아르케.
- 조희연. 2009. “‘급진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본 광주 5·18”, 『5·18민중항쟁에 대한 새로운 성찰적 시선』. 서울: 한울.
- 최정운. 1999. 『오월의 사회과학』. 서울: 풀빛.
- 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0.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전집』. 서울: 풀빛.
- 황석영·전남사회운동협의회·정동년 외 321인·한국현대사자료연구소. 1996. 『5·18 그 삶과 죽음의 기록』. 서울: 풀빛.
- 황종건. 1997. 「신문사진 한 장이 역사를 바꾸기도 했지만」. 『5·18특과원 리포트』. 한국기자협회·무등일보·시민연대모임. 서울: 풀빛.
- Snow, David A. and Robert D. Benford. 1992. “Master Frames and Cycles of Protest.” In *Frontiers in Social Movement Theory*, edited by Aldon D. Morris and Carol McClug Mueller.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133-155.

<군 자료>

- 계엄사령부. 1980. 「계엄상황일지」 .
- 광주지검. 1980. 「광주사태당시 학원동향」 . 『383-1980-82』 .
- 군사연구실. 1980. 「첨부#3 광주소요사태분석(교훈집)」 .
- 군사연구실. 1980. 「첨부#7 광주사태수습개요」 .
- 군사연구실. 1980. 「첨부#8 광주지역소요사태 진압작전」 .
- 보안사령부. 1980. 「전남도경 상황일지」 . 『383-1980-82』 .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사태 일일 속보철」 .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 전문」 . 『683-1980-90』 .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소요사태 진행상황」 . 『383-1980-100』 .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소요사태 분석 및 교훈」 . 『383-1980-100』 .
- 보안사령부. 1980. 「각 대학별 구호내용」 . 『383-1980-100』 .
- 보안사령부. 1980. 「시국수습에 따른 장병정신 교육 자료」 . 『383-1980-100』 .
- 보안사령부. 1980. 「날조된 악성 유언비어」 . 『383-1980-100』 .
- 보안사령부. 1980. 「장병순화 활동강화 요망」 . 『383-1980-100』 .
- 보안사령부. 1980. 「폭도들의 행패사례」 . 『383-1980-100』 .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사태 상황보고」 . 『383-1980-87』 .
- 보안사령부. 1980. 「광주소요사태 불온전단지」 . 『383-1980-87』 .
- 보안사령부. 1980. 「충정상황」 . 『383-1980-87』 .
- 보안사령부. 1988. 「광주사태 발발 원인과 배경」 . 『383-1988-5』 .
- 보안사령부. 1988. 「학생, 시민의 과격시위 내용」 . 『383-1988-5』 .
- 보안사령부. 1988. 「발포에 관한 내용」 . 『383-1988-5』 .
- 보안사령부. 1988. 「유언비어 문제」 . 『383-1988-5』 .
- 보안사령부. 1988. 「사태성격규정」 . 『383-1988-5』 .
- 보안사령부. 1988. 「사후대책」 . 『383-1988-5』 .
- 보안사령부. 1988. 「일정별 사태상황」 . 『383-1988-5』 .
- 보안사령부. 1988. 「총괄정리」 . 『383-1988-5』 .

- 보안사령부. 1988. 「5.17과잉진압의 불가피성」. 『383-1988-5』 .
- 보안사령부. 1988. 「유언비어의 진위」. 『383-1988-5』 .
- 보안사령부. 1988. 「사태의 성격규정」. 『383-1988-5』 .
- 보안사 1처. 1980. 「광주소요사태 상황일지전문」. 『383-1980-90』 .
- 육군정보참모. 1980. 「대외홍보 자료 작성 동정」. 『383-1980-103』 .
- 전교사 정보처. 1980. 「광주사태시 전교사 정보처 일지」. 『383-1980-93』 ..
- 511사업단(전남합수수사단). 「광주사태 수사결과」. 『383-1988-8』 .
- 701보안부대. 1989. 「광주사태 관련자료」. 『383-1989-2』 .

Ten days protest experiences and change of civic  
consciousness  
: Frame analysis to the reconstruction of 5·18 Uprising -

*Hee-Song Kim · Jung-Gie Choi*

This paper is aimed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5·18 Uprising as constructive competition of dominance and resistance through the frame analysis of leaflets distributed in Gwangju during 5·18 Uprising. 5·18 Uprising, as an historic event, required the Gwangju citizen to play a different role. The ‘citizen’ as was frequently shown in the leaflets of protesting subject played a role as a master frame representing protesting citizen in 5·18 Uprising, while the word of ‘citizen’ shown repeatedly in the military authorities' propaganda maneuvers means the citizen obedient to the military oppression.

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citizen, as was never used before, started to show as a master frame of protesting subject is closely related to the fact that the brutal violence of military authorities focused on the region of Gwangju city. The term of ‘nation’, ‘people’ used as a word symbolizing protesting subject before had a limitation in covering the tragic scene of city members during 5·18 Uprising. Consequently, the term of ‘citizen’ more broadly comprehending the entire city members was built up as a master frame.

On the other hand, the military authorities also used the term of citizen constantly, while, it categorized the citizen as two subject by patriotic citizen and rebellious citizen. Through this pacification work, the military authorities distorted the reality of 5·18 Uprising of Gwangju city.

The examination of military document shows that the main and most frequently exclaimed slogan of the Gwangju citizen in the early 5·18 period was the "Abolition of martial Law". However, through the ideological manipulation, the military authorities had linked the direct reason of protest to the arrest of Kim Dae-Jung, the local political leader and obviously, the purpose of which was to abridge the meaning of 5·18 Uprising within the just regional problem.

key word: 5·18 Uprising, frame analysis, master frame, citizen, dominance and resistance, constructive competition